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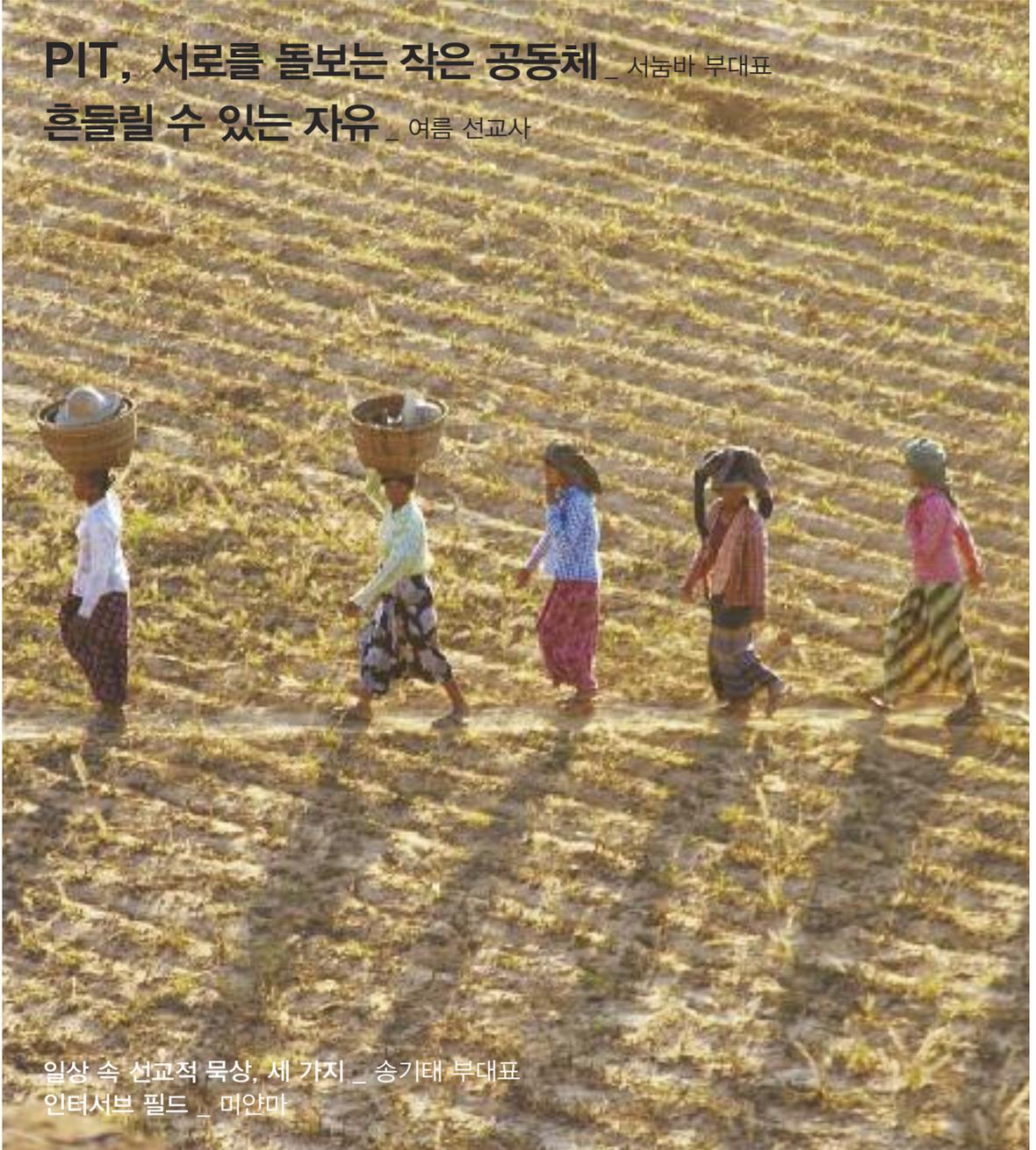
experience
Life As Mission

140th, Summer, 2021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 터 서 브 프렌즈

PIT, 서로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 _ 서눔바 부대표
흔들릴 수 있는 자유 _ 여름 선교사



일상 속 선교적 묵상, 세 가지 _ 송기태 부대표
인터서브 필드 _ 미얀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마치며...

무슬림은 경계하고 반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삶으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지현 프렌즈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일상 속 선교적 묵상, 세 가지 _ 송기태 부대표
- 07 서로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 PIT _ 서눔바 부대표
- 11 흔들릴 수 있는 자유 _ 여름 선교사
- 14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짊어짐 _ 김은우 프렌즈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 16 미션얼 패밀리 _ 임민정 매니저

Ministry

어려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19 하나님, 미얀마를 새롭게 하소서 _ 이평안 선교사
- 24 미션얼 북 _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이플러를 제거해주세요.



일상 속 선교적 묵상, 세 가지

송기태 부대표

하나, 생일맞이 펀드레이징

생일을 맞을 때마다 지체들의 축하를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경험하곤 한다. 그때마다 생일의 의미,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의미에 대해 묵상한다. 올해 생일은 색다르게 의미를 살리고 싶었다. 작년 봄에 조샘 대표가 자신의 생일 때 펀드레이징을 해서 몇 가정을 도왔는데, 나 자신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생일을 지체들을 돕는 데 사용하다니!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올해는 페이스북에 ‘생일맞이 펀드레이징’을 시도했다. 제목은 ‘한 선교사 가정의 곰팡이 제거 프로젝트’였다. 이 가정은 중국에서 16년 동안 사역했고, 부인 선교사의 폐암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지금은 춘천에서 머물고 있는데 선교관의 곰팡이 때문에 부인이 고생하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전환기에 있는 이 부부의 버디Buddy 역할을 맡고 있다. 나는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돕는 버디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감사하게 이틀 만에 250만 원이 모금되었다. 곰팡이 제거와 도배팀을 보내서 돕겠다는 분도 계셨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매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생일이지만, 올해는 너무도 만족스럽고 보람있게 보냈다. 다음에는 일상에서 기념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다른 이웃들을 돕는 데 개발하고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둘, 잔여 백신 접종 소감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정부의 백신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터서브에서 단체로 잔여 백신 접종을 신청해서 성사된 일이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망설였다. 백신 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발을 다쳐 재활 치료 중인 아내를 간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의 때 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듣고 접종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선교단체에서 일하면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오는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만남이야말로 의료 업계 종사자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위험 직업군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접종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주 전에 한 교회에서 의사 한 분과 백신 접종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의사로서 백신 접종이 옳다고 여기지만 사람들에게, 특히 환자들에게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 분과 대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백신 접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작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백신 접종에 참여해야 하는가? 만약 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물론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기회에도 백신 접종을 통하여 이웃들을 섬기는 의미를 부여해 본다

면, 결국 복음의 공공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 그런 태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작은 실천이 아닐까?

셋, 한 청년의 직업관 변화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청년에게서 반가운 카톡이 왔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SNS(the Sents N the Senders) 모임을 통해 저의 직업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면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강의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이 청년은 대구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구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 청년을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에 대구 지역 연합으로 열렸던 ‘선교 헌신자 비전 캠프’에서였다. 50여 명이 참여한 이 모임에서 이 형제를 만났다. 그 이후에 인터서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6~7명과 1년 반 가까이 매월 두 번씩 모임을 했다. 모임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책들을 함께 읽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 모임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했다. 특수 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 병원 간호사, 출판 회사 직원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우리가 주로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는 “우리는 왜 일하는가?”였다. 상당히 오랫동안 청년들의 직업관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렵고 조금해졌다. 나이와 세대 차이가 크게 나는 청년들과 소그룹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직업으로 하는 내게도 보통 도전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의 직업관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이미 보내신 직장의 일을 ‘선교적’^{missional}으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평범한 직장의 일상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청년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서는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즐거이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서 주님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

서로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 PIT

Partner in Transition

서눔바 부대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용어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서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설고도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이나 추방, 비자 연장 거절 등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선교지에 있을 수 없어 선교지 재배치, 다음 방향으로의 준비, 사임과 은퇴 등 일시적 전환기를 맞이한 선교사를 인터서브는 Partner in Transition(이후 PIT)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해에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고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모두 6유닛이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4유닛이 사역을 정리하고 고국에 들어옵니다. 인터서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입국하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고국에 들어와서 겪게 될 어려움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부 차원의 정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랜 고민과 기도로 준비하며 고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준비했던 그렇지 않았든 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환의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전환기 동안 국내에 머뭙니다. 처음 선교지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 적응을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문화적 재적응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역문화 충격과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 관계적으로 어려운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와 사역의 불확실성으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시편 40편의 고백처럼 깊은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잘 지나갈 경우, 많은 부분에서 성장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대로 주께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다음 방향을 향해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 기간 동안 선교사들은 :

1.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터서브와 파송 교회, 협력 교회들, 후원자들, 선교사와 가족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새롭게 세워 가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2.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 하나 됨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전환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선교사들이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지만, 결코 혼자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과업이지 선교사 단독의 사역과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 선교사에게는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인 돌봄은 파송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파송 교회와 협력 교회, 후원자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고국으로 들어오면 후원 재정을 중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후원 중단은 오랜 신뢰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에 선교사들을 더욱 낙심하게 합니다. 인터서브는 전환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파송 교회와 후원자들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격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PIT 프로세스

- 인터서브 본부
- 선교사
- 파송 / 협력교회



전환의 과정에서 파송 교회와 인터서브는 선교사들을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강한 공동체성을 함께 경험합니다. 돌봄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섬김 속에서 선교사와 공동체 모두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선교지를 떠나 고국에 들어와 있는 동안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떼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인터서브의 PIT 지원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IT 기금 _ 재정적 돌봄

PIT들을 돕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선교지보다 물가나 집세가 비싼 고국에서 거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최대 2년 동안 대출해드립니다. 재정 지원이 필

요한 경우 역시 최대 2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 가족이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재발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찾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2. 자두 나무 모임 _ 정체성 돌봄

선교지를 떠난 후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선교사들은 PIT가 되면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교제/기도 모임인 “자두나무”에 초대됩니다. 이미 고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과 친밀한 교제와 나누며 응원과 격려를 받습니다. 이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PIT 선교사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선교사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3. 버디 _ 정서적 돌봄

PIT에게는 버디**buddy**가 정해집니다. 선교사가 본인이 교제하고 싶은 버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버디는 PIT가 새로운 선교적 방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친구의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와 동행하고 선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돕고, 셀프 케어를 격려하고 공동체와의 연결을 돕습니다. 버디 역시 최대 2년까지 PIT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버디로 기꺼이 섬겨주시는 분들은 인터서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버디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PIT와 버디가 서로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눔으로 친밀한 사귄과 나눔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디들만의 카톡방이 운영되어 PIT들과의 만남 사진을 올리고 만남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다음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는 선교사들이 외롭게
홀로 가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PIT 기간을 거친 후에 선교사는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거나, 다른 나라나 국내로 재배치되거나 사임, 은퇴하게 됩니다. 인터서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서로를 돌보는 작은 공동체가 더 늘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돌봄의 공동체는 회복과 성숙함을 향해 자라가고, 성령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

버디 Buddy

인터서브는 선교지에 도착하면 새로운 곳에서 정착과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 선교사를 버디라고 부릅니다.

버디는 그 지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 가족을 돕고 섬깁니다. 시장, 학교, 공원, 우체국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봄, 여름 선교사 부부와
버디 김만철 이사장

흔들릴 수 있는 자유

여름 선교사

2014년 네팔에 파송 받은 지 7년이 되었다. 코로나를 피해 작년 6월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네팔에서 사역하던 국제 NGO, United Mission to Nepal(이후 UMN)로부터 내년도 비자 갱신에 문제가 없다는 약속을 받고 들어왔다. 그러나 네팔의 상황이 변하면서 약속했던 비자 재발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팔 정부가 국제 NGO 선교사들에게 비자 발급을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며 어느새 올해의 반이 지났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UMN 카트만두 본부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에 와서 본부에 상담을 요청했다. 본부는 우리에게 UMN에서 확실한 비자가 나오면 재입국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역지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PIT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PIT에 들어오면 여전히 네팔팀으로 남아있지만 멤버 케어만 한국 본부

로 이관되며, 진로 재조정을 위한 멘토링과 약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 주셨다. PIT 제안을 받고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파송 교회에 언제 우리의 PIT 전환을 알리는가였다. 본부에서는 우리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교회와 소통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팔에서 사역한 첫 팀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늘 비자가 불안했다. 내가 기관 사역을 할 때는 잠시뿐 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남편이 태산 같은 먼지를 뚫고 왕복 2시간 이상을 길에다 시간을 쏟으며 언어 학교에 다녔다. 아이들은 어렸다. 팀 멤버 대부분이 기관에 속해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자가 불안정한 우리 가정은 왠지 위축되었다. 태권도와 미디어, 나름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역하라고 파송을 받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7년의 시간이 이렇다 할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역 재조정 선교사로 마무리 된다니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PIT가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다.

PIT에 들어온 이후 남편은 본부의 조언을 따라 국내 사역을 리서치하기 시작했다. PIT에 들어온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자두나무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의 상황을 듣고 기도했다. 나는 UMN 업무를 집에서 계속하면서 아이들을 돌봤다. 무엇보다도 본부에서 교회에 '진로의 재탐색을 위해 집중하는 시기에 있는 선교사며 교회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는 공식적인 요청을 해 주셔서 마음 놓고 리서치를 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미디어 사역을 하는 기관과 연결되어, 현재 교회 및 본부와 상의하면 사역지를 이동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PIT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팔에서 계속 있었거나 PIT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중동으로 사역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네팔에서 비자가 막히면 머릿속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온통 비자로 가득했다. 어떻게 해야 비자를 뚫을 수 있을지 그 생각만 반복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국에 오거나 여행을 가곤 했다. 사역지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PIT

도 비슷하다. PIT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맘껏 진로를 탐색할 자유를 준다. 국내 사역 리서치를 위해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당당하게 다른 사역지에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한다. 흔들릴 수 있는 자유. PIT은 우리에게 지난 한 팀 네팔 사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흔들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자유를 주었다.

네팔팀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었다. PIT에 들어가기 전에 네팔 팀 리더와 배치 담당자와 함께 회의를 했다. 우리가 왜 PIT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서로 이해하는 단계를 거쳤다. 팀이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팀 리더도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멤버 케어를 한국본부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판단을 했다. 만약 PIT가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역지를 탐색하는 것이 웬지 네팔팀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을 것 같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먼 네팔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북구 러시아 툰드라에 사는 유목민들은 한 장소에 천막을 친다. 그리고 며칠을 머물며 천막 주변에 가축을 먹일 푸른 풀과 빨갛으로 쓸 나무가 떨어지면 천막을 접고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그들의 삶은 텐트를 치고 접는 일이 반복되는 길 위의 삶이다. 길 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 가축을 살찌우고 보살핀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이가 들고 삶을 마감한다. 고단한 삶으로 보이지만 텐트를 펴고 접는 얼굴엔 짜증이 없다. 툰드라 유목민의 삶이 내 삶과 비슷해 보인다. 나도 그들처럼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어렵다. 그러나 유목민들이 텐트를 치고 접는 것을 스스로와 그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도 늘 우뚝 솟은 바위가 아니라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족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원, 은혜 선교사 가정과 버디 김은우, 문혜정

김은우 프렌즈

김은우 프렌즈는 중앙아시아에서 10년간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하였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재정착한 경험으로 전환기의 선교사들의 든든한 버디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찐** 공감

대다수 선교지에서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낯선 땅, 신분의 불안정, 현지 정치 상황, 자녀 양육 등 사역에 영향을 주는 가법지 않은 변수들이 상존한다. 선교사들은 이것들과의 끝모를 싸움을 본인이 선택한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쩌다 이러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더라도 하면 동역자들로부터 격한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니 그리 나쁘기만은 하지는 않은 일이다.

전환기를 겪는 선교사의 상황은 위에 언급한 어려움에 장기 계획에 없었던 철수의 트라우마, 정체성의 위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까지 더해진다. 눈치 주는 사람이 없건만 괜히 주눅이 들고 누가 물어보면 장황하게 설명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두가 잘 이해해주는 것 같지도 않다. 좀 다른 경우지만 2006년, 한국에서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향하는 나름

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한동안 나에게 닥친 정신적 혼란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던 기억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며 가재는 게 편이 아니던가. PIT들의 하소연을 찐 공감하며 들어줄 이들이 있으니 이름하여 버디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니 짝신이 제 짝을 만난 격이다. 지금까지 3번의 버디와의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각자의 경험과 고민이 유사하니 대화에 막힘이 없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참고사항이 된다. 이제 선교지나 다름없는 한국에서 버디와의 관계는 선교적 삶을 함께 살아갈 동지의 관계로 발전해갈 것으로 기대된다. **✚**

PIT 기금 후원하기

PIT 기금은 전환기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QR코드나 아래 계좌번호를 통해 전환기의 선교사님들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079-04-0000495-6, 예금주 : 인터서브
후원문의 : 031-778-7931



■ 미션얼 Family

family

임민정 매니저(재정부)

Missional Family



인터서브 재정부에 새로운 멤버가 합류하였습니다. 인터서브 적응과 업무를 익히느라 바쁘고 정신없던 3개월을 보낸 임민정 매니저를 만나보았습니다.

Q. 인터서브의 한 식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가족소개 부탁드립니다.

» 지난 2월 중순부터 재정부에 합류한 임민정입니다. 가족은 동갑내기 짝꿍과 장난꾸러기 두 아이가 있습니다. 성향이 정반대인 짝꿍과 11년째 평행선을 달리지만, 9살, 7살 아이들을 키우며 나름대로 아옹다옹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Q. 인터서브 재정부에 어떤 일을 맡게 되셨나요?

» 선교사님들의 수입과 지출 관리가 주 업무로, 국제본부와의 소통, 후원자 관리, 재정 관련 서류작업 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브 후원계좌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의 후원금들을 관리하고 선교사님들께 생활비와 사역비를 송금해드리는데요, 아마 본부에서 선교사님들과 가장 자주 메일을 주고받는 자리일 듯합니다.

Q. 이제 일하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 1년은 넘게 일한 것 같은 기분인데 3개월밖에 안 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초

반에는 '지난 9년간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쏟다가 다시 직장에 다니면 잘 할 수 있을까?', '업무량이 많고 복잡한데 과연 한 달 인수인계 받고 혼자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 좋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과 직장에서 매일 해야 할 일들로 바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작년 이맘때 아이들과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참 사람의 앞날은 모르는구나 싶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Q. 3개월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 어려운 점과 보람된 일이 맞닿아 있는 듯해요. 112유닛, 200여 명 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현황 파악과 그와 연관된 개별적인 업무들도 복잡한데, 4월부터 새로운 재정 내규를 적용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기존 업무를 익히는 동시에 새로운 내규를 반영하는 일을 소화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3달간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메일들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매월 초 재정보고서를 문제없이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 과정을 거쳐 송금해드린 후원금이 현지에서 각종 사역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출근길에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울 때입니다. 의지할 다른 가족이 없이 남편과 둘이 오롯이 육아를 감당하고 있기에 몇 달간 고군분투 중인데요, 이 문제는 답이 없어 참 힘들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해

결 될까요? 선배 부모님들께 묻고 싶은 마음 이네요.

Q. 인터서브에서 일하시면서 선교나, 선교단체에 대해서 몰랐거나 새롭게 알게 된 일이 있나요?

»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기도와 후원이 충분하면 선교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함께하는 현지 사역팀, 본부의 인사팀, 재정팀, 홍보팀, MK와 한국에 있는 가족을 돌보는 멤버케어팀, 나아가 국제 본부의 지원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선교사역에 닿아 있음을 깨달았어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닌 공동체의 일이라는 걸요.

Q. 앞으로 인터서브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하고 싶으신가요?

» 작년에 아이들과 24시간 함께하며 따로 기도하기는 힘들고 주로 설거지를 하면서 짧은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직장을 다시 다닌다면, 업무적 능력을 쌓지만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도우면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인터서브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부르신 이곳에서 필요한 재정관리 업무능력을 개발하며 동료와 선교사님들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Q.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

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제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만 내 인생, 내 가족의 일에만 골몰하여 바깥세상과 선을 긋는 자아를 넘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먼저 겪어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에도 내가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데, 타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건 참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웃과 연을 맺고 음식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되려 하는데, 이런 작은 노력이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프렌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여러 선교사님과 본부의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적응하는데 도와주셨어요. 또, 담당자가 바뀌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믿고 기다려 주셔서 차근차근 업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 인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어 볼 때면 살짝 긴장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후원자께 어떤 연락이 올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클릭하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답장을 씁니다. 가끔 장문의 메일이 도착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언젠가 얼굴을 직접 뵈 날을 기대합니다. ㄹ



동시나님, 미얀마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곧 끝날 것 같던 미얀마 사태가 5월 11일로 100일을 넘어섰다. 대규모 시위와 군부의 강경 진압에 이어 이제는 국경 지역 반군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외면과 미얀마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 충돌, 군부의 내부상황 등이 맞물려 미얀마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평안 선교사





Myanmar

왜?

이번 미얀마 사태의 원인에 대해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이라고 군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미얀마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군부의 권력장악을

보장하는 특이한 권력분점체계로 인해 군부의 정부 장악은 항상 보장되어 왔던 권리였다.² 그렇기에 이번 사태의 이면에 있는 군부의 내부적 의도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있다. 군부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여 왔다. 특히 군인이라는 본분보다 미얀마의 경제를 장악하는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서 미얀마 12개 주요 산업에 대한 독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렸다. 이로 인해 축적된 막대한 이익은 군부가 미얀마 사회를 장악하는 기반이 되었고, 상부에서 하부로 경제적 이익을 나눠 갖는 분배구조는 군부 세력화에 밑거름이 되었다.³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웅 산 수 치 여사로 대표되는 민간 정부는 2030년까지 군부의 힘을 서서히 줄여가는 개헌안을 추진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군부의 대응이 이번 미얀마 사태이다.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군부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군부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적극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경 진압에 나선 결과,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미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일부 소수민족 지역에서 기존 반군 세력 중심으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기존 갈등이 민족과 종교라는 명확한 경계로 소수민족 반군 VS 버마군부로 구분되었던 것과 달리, 군부에 반대하는 버마 시민 세력들이 새롭게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군부에 의해 자행되는 비극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미얀마 땅을 변화 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1) 미얀마 사태로 인해 구금자 3,989명/수배자 1,659명/사망자 790명 이 발생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 2021년 5월 15일 발표 (<https://aappb.org/>)

2) 미얀마 2008년 개정 헌법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 지지선인 상하원 각 25%의 의석을 군인들에게 자동 할당하는 것을 보장하였으며, 군통수권과 내무, 국방, 국경수비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군 최고사령관에 보장하여, 군부의 정치개입을 보장하였다.

3) “미얀마의 정치위기와 불확실한 미래 : 군부의 무기와 시민의 세손가락”, 장준영, 아시아 브리프 1권 3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년 3월 22일, <http://snuac.snu.ac.kr/?p=31440>

이번 사태로 인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군부라는 막강한 세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미얀마의 각 종족들이 종족갈등의 벽을 넘어 연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얀마의 종족갈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왕조시대부터 쌓아진 종족 간의 갈등과 상처는 영국의 식민지배와 독립, 독립 후 연방정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무력충돌, 최근 자원분쟁에 이르기까지 그 깊은 상처의 골을 가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출범하고 연방헌법이 공포되었지만, 내부적 단결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면에는 오랜 갈등과 배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 소수민족과 버마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인식변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이다.

두 번째는 불교라는 거대한 사회적 장벽이자 맹목적 믿음의 대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의 요청과 기대를 저버린 채 군부를 용납하고 묵인해 준 불교에 대해, 미얀마 시민들은 실망하였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권력자들과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불교에 대한 믿음에 균열이 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변화이다.

마지막은 **미얀마 사람들의 세계관 변화이다**. 불교와 전통신앙에 기반한 교육과 신앙체계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온 미얀마의 세계관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장벽이었다. 이번 미얀마사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시위에 나서는 이들의 공통점은 스스로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싸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기 보다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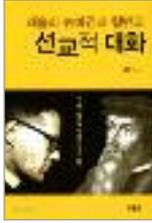
수많은 아픔과 슬픔, 비극적인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미얀마 상황은, 슬픔과 애통한 마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게 만들지만, 미얀마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 이뤄 가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

미안마를 위한 기도

미안마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아픔이 계속되는 미안마 땅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미안마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이 삶의 경험이 되게 하소서.
균부에 맞서는 주요 리더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무너진 질서들이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미안마가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는 용서와 화해가 미안마 땅을 덮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땅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미안마가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미안마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미셔널 BOOK



레슬리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황영익 지음 / 드림북, 2015 (436 페이지)

선교적 교회 컨설턴트로 방문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다. 책을 보는 순간 경련이 일어날 뻔했다. ‘뉴비긴과 칼빈의 선교적 대화’, 실로 나에게 엄청난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효시로 알려진 뉴비긴의 책을 여러 권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과연 칼빈에게도 선교적 관점이 있었을까?”

뉴비긴과 칼빈 : 칼빈이 16세기에 가톨릭의 세속화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뉴비긴은 ‘선교적 교회 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릴 만큼 20세기에 전통적 선교의 패러다임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제는 약 400년의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나는 두 인물에게 어떤, 공통적인 선교적 관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칼빈에게 선교적 관점이 있었는가? : 칼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기독교 강요’, ‘제네바 교회 운동’ 등을 떠올리지만, 선교를 이야기할 때 칼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새로 발견한 선교의 개념은, 뉴비긴의 시대의 선교적 과제와 칼빈 시대의 선교적 과제가 달랐다는 것이다. 칼빈에게는 로마 가톨릭과 맞서서 신생 교회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또한 유럽에 소위 ‘침된 교회’라 일컬었던 개신교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칼빈이 힘썼던 제네바에서의 ‘통전적인 선교 사역’들을 새롭게 조명한다. 당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유럽 각지에서 제네바로 몰려왔던 수많은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역들, 제네바 시의회와 협력을 통하여 시민 사회 활동에 참여했던 것들, 프랑스와 유럽에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목

회자들을 훈련시켰던 점 등을 선교적 사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두 관점 : ‘선교적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그 출발점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이 WCC(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 확립한 선교론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는 선교적 교회 개념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불편하고 넘지 못할 선이라는 선입관이 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뉴비긴이 초기에는 WCC의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나중에는 신학적 노선의 차이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어야 했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복음주의권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스터디할 때에 뉴비긴이 주장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적실성을 분명히 제공해 준다.

선교적 교회의 역사적 흐름 :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이라 여겨지는 요소다.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연속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복음주의 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매우 부족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향해 출발했던 18세기 말을 개신교 선교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은 선교를 너무 현상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보려는 우리의 한계다. 이 책은 칼빈이라는 개신교 선구자와 20세기의 개신교 선교론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뉴비긴과의 선교 신학적 관점을 분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뉴비긴의 ‘오픈 시크릿’처럼 이 책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운동의 역사적이고 신학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송기태 부대표

선교는 새로고침이 아니다

선교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문은
복음과 직업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삶을 이어쓰다

인터서브는 다양한 영역에서 삶을 이어 써나갈 선교사를 찾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간단한 정보를 보내주세요.



문의 : 인터서브 인사부 정승은 매니저, opmanager.isk@gmail.com, 031-778-7931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40호
2021 Summ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1년 여름호 통권 140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1. 6. 2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